

데스크 시각

부동산 열풍



홍행기 경제부장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동창모임에 나갔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한 친구가 “나도 소형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다”며 “요즘 직장인이라면 살고 있는 집 외에도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 한두 채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했다.

분양이 돈 되는 아파트

이러니 아파트 투자 열풍이 뜨거울 수밖에.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에, 세를 놓을 경우 적지 않은 월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깡 먹고 알 먹고’가 따로 없다.

은편칼럼

산골마을의 쓰레기를 걱정하는 이유



고성혁 시인

경이로운 태동으로 시작하여 몇 생명이 열정적으로 성장하는 봄 끝까지 왔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여름을 향해 가야할 때다. 상추밭을 위한 밭갈음이 잦고, 가지, 고추를 묶는 수고로움도 이내 넘어섰다.

기고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개혁 진영의 새 진로



최성기 고사장

셋째 ‘5·18의 인권정신’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인권적 상황의 개선은 물론 헌법준수안부의 해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등 국제적 신평화인권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되면서 이런 격정도 속 들어가 버렸다.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을 등에 업고 돈이 계속 풀린다는 이야기가이기 때문이다.

막기 위해선 계약금을 페이더라도 손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광주에서 ‘부동산 활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수십 개격정도 속 들어가 버렸다.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을 등에 업고 돈이 계속 풀린다는 이야기가이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어

문제는 올해 이후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돈을 풀고 있으니 부동산도 활황세가 이어질 테지만, 서서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주택 수요도 줄기 시작할 것은 불문가지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국론 분열시키는 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18일 “총복 덧씌우기에 보훈처장이 앞장서는 것은 용서하기 힘들다”며 보훈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않는가. 보훈처는 이번 5·18 기념식에서 경과 보고에 계엄군의 발표와 강경진압을 제외시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박승춘 처장은 지금까지 반민주적 처신과 역사인식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한 보훈처장이 된 인물이다.

초등학생 85%가 아빠와 대화 안 한다니

요즘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TV예능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한 공중과 방송의 ‘아빠를 부탁해’다. 50대 연예인 4명과 20대 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평소 대화에 서툰 자녀기간의 일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답자 84% 가운데 하루에 3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자는 29%였다. 10분~1시간 미만은 절반에 가까운 41%나 됐다.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6%였다.

無等鼓

순학규는 정계 입문 20여 년만에 두 번 선거에 들어갔다. 첫 번째 집거지는 강원도 춘천이었다. 통합민주당 창당을 주도하고 당 대표에 취임 후 지른 18대 총선에서 패배하자 2008년 7월 춘천으로 향했다.

나 한변씩 이용하는 곳이다. 아궁이에 직접 불을 지피어 난방이 가능하고 찰흙 같은 어둠과 친해지지 않으면 밤을 지새기 힘든 곳이다.

강진 순학규

이 분당 직전의 갈등을 겪으면서 순학규에 대한 구원등판론이 거세다. 당내 갈등을 완충하고 계파를 뛰어넘는 구심점 역할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탓이다.

공교롭게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10여 년간 살면서 목민심서를 저술한 다산초당과 지근거리다. 순학규는 동백숲으로 이어진 다산초당과 뒤편 만덕산을 오르며 백성을 위한 정치와 위정자의 자세(다산정신)를 가슴깊이 새겼을 터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민신문 (광주)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